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유진로봇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오메가'

먼지 많은 곳 스스로 감지, 강력한 터보모드로 청소

유진로봇의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오메가는 강한 흡입력을 자랑한다. 실내 미세먼지, 반려동물 털 등을 제거하는 데 제격이다. 청소하는 도중 먼지가 많은 곳을 발견하면 스스로 터보 모드를 가동해 흡입력을 강화한다. 지난해 출시한 이 제품은 고가(50만원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능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3만 대 이상 팔렸다.

유진로봇은 LG전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우세한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울인원 청소가전 오메가**
아이클레보는 유진로봇에서 2005년 처음 선보인 청소로봇 전문 브랜드다. 이후 꾸준히 로봇청소기 제품을 내놓으며 성능과 디자인 등을 보완해 왔다. 이번 제품에 오메가라는 이름을 붙인 건 그만큼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신경철 대표는 "기존 로봇청소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부족한 흡입력을 대폭 보완했다"며 "제

품을 써 본 주부들이 우스갯소리로 '남편보다 낫다'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진공 흡입 청소부터 걸레 청소까지 가능한 울인원 제품이다. 10년 이상 가동률 수명을 늘린 모터로 장작했고 소음은 대폭 줄였다.

흡입력 높이고 소음 줄여 수명 10년 넘는 모터 장착

지난해 3만대 이상 팔려 유럽·러시아 등에 수출

먼지가 많은 곳은 스스로 감지해 강력한 터보 모드가 작동되고, 예약 기능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자동 청소할 수 있다.

유진로봇은 제품 디자인을 김영세 이노디자이너 대표에게 맡겼다. 디자인에 신경 쓰다 보니 개발에만 3년 이상 걸렸다. 신 대표는 "기존의 획일적인 로봇청소기 모양에서 벗어나 '예쁜 청소로봇'을 제작하고 싶었다"며 "하트 모양에서 영감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가 흡입력 등 성능을 강화한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오메가를 소개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을 얻어 현대적인 외관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표적 로봇 전문기업**
신 대표는 서울대 기계설계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딴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종합기술원 정밀기기연구소에서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다가 부친의 회사인 자동차용 전장품 제조업체 유진전장(현 유진로봇)에 합류했다. 1990년 대표로 취임한 뒤

사명을 유진로봇으로 바꾸고 로봇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회사를 로봇전문업체로 키웠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10여 년 전부터 유럽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에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청소로봇을 수출하고 있다. 유진로봇의 개시카우는 로봇청소기지만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매달리고 투자하는 분야는 산업로봇이다. 최근엔 물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jkim@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11월의 으뜸중기 제품 △아지랑이-온도 유지 보온병 △다이나톤-디지털피아노 DPR-3160K 렌탈 △유진로봇-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오메가 △티앤에스모터스-접이식 전기자전거 모야2

류용 서비스로봇인 고카트를 선보였다. 전체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이다.

완공을 앞둔 인천 송도 신사옥으로 곧 이전한다. 이곳엔 로봇전시관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 대표는 "스스로 돌아다닐 수 있는 로봇청소기가 집안 가전제품의 '허브' 역할을 할 날이 곧 올 것"이라며 "로봇제품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삼성바이오에피스 '온트루잔트' 유럽시장 판매 최종 허가 받아

항암제 '허셉틴' 복제약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온트루잔트(성분명 트라스투주맙)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최종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발표했다.

온트루잔트는 스위스 로슈가 판매하는 초기 유방암, 전이성 유방암 및 전이성 위암 등의 항암 항체 치료제인 허셉틴을 복제한 약이다. 허셉틴은 지난해 매출 7조8000억 원을 기록한 세계 8위 바이오의약품(판매액 기준)으로 2014년 7월 유럽에서 물질 특허가 만료돼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쟁이 치열했다. 유럽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외에도 셀트리온이 지난해 10월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신청했고 암젠과 앨라칸도 지난 3월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트루잔트의 판매 허가는 9월 유럽의약품청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에서 '긍정 의견'을 받은 뒤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유럽 최초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승인을

받게 됐다. '퍼스트 무버(시장개척자)'로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

이런 평가다. 온트루잔트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첫 번째 항암 항체 치료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기존 자기면역질환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 항체 치료제 분야에서도 연구개발(R&D) 역량을 인정 받은 것"이라며 "고품질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유럽 항암시장에서도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트루잔트는 유럽 국가별 절차와 유럽 영업 파트너인 MSD와의 협의를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글로벌 10위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를 최다 보유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온트루잔트 외에도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블록버스터 자기면역질환 치료제 3종의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에서 베네 팔리아 플러스를 바이오제너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8월 임팔디의 유럽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유진저축은행 출범식이 20일 서울 삼성동 본점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김준수 한국통운 사장, 양원돈 유진그룹 사장, 유지창 유진투자증권 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양현근 저축은행중앙회 서울시지부장(민국저축은행 회장), 유청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 이계천 유진저축은행장, 백의현 동양 대표. 유진그룹 제공

유정선 유진회장 "200년 후 자손이 다닐 회사로"

유진저축은행 출범

"오늘 우리는 새로 시작합니다. 갈 길이 멀다고 할 게 아니라 한 걸음씩 개척해 나갑니다. 20년 후 내 자식이 다닐 회사, 200년 후 내 자손이 다닐 회사로 만듭시다."

유정선 유진그룹 회장은 20일 서울 삼성동 유진저축은행 강남본점에서 열린 '유진저축은행 출범식'에서 "준법정신과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핀테크(금융기술)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준비하며 시대를 앞서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에 0.1mm 크면서 7200년

을 산 나무는 조금씩 발전하다 보니 거목이 됐다"며 "기업도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매년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 회장을 비롯해 유지창 유진투자증권 회장, 유청수 부회장, 이계천 유진저축은행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1972년 대영저축은행으로 창립한 유진저축은행은 2011년 옛 현대증권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인수하면서 KB증권 손자회사로 편입됐다. 유진그룹은 지난 5월 현대저축은행 인수전에 뛰어들어 우선협상대

상자로 선정됐으며 지난달 12일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유진저축은행은 자산 1조7000여억원의 업계 8위 회사로 지정을 내 개다.

유진그룹은 기존 유진투자증권 유진자산운용 유진프라이빗에쿼티 등 금융 계열사에 이어 저축은행까지 인수함으로써 종합금융서비스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업계는 유진그룹이 기존 계열사와 저축은행 간 연계를 통해 신용융자 서비스 확대와 투자은행(IB) 자금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magazine.hankyung.com
No. 1147 | 2017.11.20 - 26
비즈니스맨의 성공을 위한 추진지 값 4,500원

한경 BUSINESS

COVER STORY

대기업과 중기 사이 중견기업의 활로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른바 '허브'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중견기업은 3558개로, 전체 기업의 0.1%에 불과하지만 한국 전체 고용의 약 5.5%(115만3000명)를 창출하고 있다. 한경비즈니스가 중견기업들의 고민과 함께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중견기업의 고충은
'물려의 실용' 중견기업에도 별 볼 일 없다

산발 속 돌풍이①-조세
기업상속 조세 부담 커지고
임금줄이주기 범위는 확대

산발 속 돌풍이②-판로 축소 및 임금 격차
적합인종에 특화된 '중견기업의 눈물'

중견기업연구회
'양질의 DB 생산...2세 승계 적극 지원'

해외 진출
'해법은 해외 진출인데'...건도는 육성책

해외 사례
'글로벌 넘버원'...독일 미텔슈타트의 힘

인터뷰 - 중견기업연합회
'기업의 성장의욕 복원은 정책 펼쳐야'

WEEKLY ISSUE

재생건축
새로운 도시재생 '공간 업사이클링'

인물&기업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한화그룹

BUSINESS FOCUS

국제로터리
'가족과 함께하는 뉴 로터리' 만들었다

'고령 친화 식품' 경쟁
씹기 편한 스타이크... '살버 푸드' 뜬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나프타보다 한·미 FTA 폐기 가능성 높아'

한눈에 보는 산업 대전망-조선·기계
조선업 승풍 트일까?...기계는 건설 장비 업종 주목

글로벌 현장
이번 없는 Fed 의장 지명, 금융시장 평온했다

SPECIAL REPORT I

초대형 IB 탄생
'한국판 골드만삭스' 첫발,
한국투자증권 승기 잡았다

SPECIAL REPORT II

편의점
신규출점 사상최대...편의점 '편' 바뀌나

SPECIAL REPORT II

자율주행차 기술 선점 경쟁
한국형 자율주행차
현실화 임박한다

TREND

트렌드
'작은 창작'으로 힐링들... '가족 공방' 인기

MONEY

비트코인 A to Z
'BTC나, BCH나' 그것이 묻는다

머니 인사이트
발생한 소득이 없는데도 왜 세금 내야 할까

부동산
'반값 수수료' 바라보는 부동산업계의 속내

법으로 읽는 부동산
'세대 구분형 아파트' 뉴 재테크 상품 될까

광고문의:02-360-4835 구독문의:02-360-4841 ※대형 서점·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해 구직자·기업 연결

사전 온라인 역량검사 통해 기업 추천... 현장서 심층 면접

리딩 코리아 잡페스티벌

"A기업 연구개발직에 관심이 있었는데 인공지능(AI)이 A기업을 추천해주었어."(구직자 김상원 씨)

AI가 취업을 시켜주는 시대가 됐다.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밤(汎)부터 채용박람회 2017 리딩 코리아, 잡페스티벌에는 AI를 활용한 구직자와 기업 간 매칭 기술이 적용됐다. 국내 채용 박람회에서 이 같은 기술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 5000여 명 중 3364명이 AI의 기업 추천을 받기 위해 사전 신청 과정에서 온라인통합역량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1인당 평균 6.5개 기업, 총 2만2000건이 매칭됐다. 현장에선 이 결과를 바탕으로 1800여 건의 심층면접이 열렸다. AI 시스템

을 개발한 마이다스아이티 관계자는 "AI를 활용하면 구직자는 기업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AI 시스템은 2015년 개발해 국내 100여 개 기업에 공급했다"며 "기업들의 만족도가 90%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게임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서 및 공감능력을 비롯해 논리추론 능력 등을 측정한다. 가령 점점 변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알아맞히거나 가상의 양말 저울을 이용해 추의 상대적인 무게 순서를 알아내는 식이다. 마이다스아이티 관계자는 "지원자의 업무 역량뿐 아니라 성향도 함께 분석해 어울리는 조직문화

를 가진 기업을 추천해준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AI가 영동한 결과

를 내놓기도 한다. 구직자 오희경 씨(24)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AI가 엔지니어링 분야를 추천해줘서 당황했다"며 "전공 분야 및 경력과 무관한 업무 추천은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